

첫 연습경기 졌지만... KIA 마운드 희망 봤다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야쿠르트 스왈로스전 3-5 역전패 한승혁·하준영·홍건희·문경찬 호투 릴레이...타자는 이창진 두각



한승혁

KIA 타이거즈 '마운드 전쟁'의 막이 올랐다. KIA가 11일 일본 오키나와 우라소에 구장에서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연습경기를 가졌다. 스프링캠프 첫 연습경기 결과는 3-5 역전패였지만 마운드 기대주들의 움직임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 KIA는 이번 캠프에서 양현종, 제이콥 터너, 조 윌랜드를 제외한 4-5 선발 찾기를 하고 있다. 김세현이 몸상태 불합격으로 조기 귀국한 가운데 임기준, 박준표까지 부상으로 캠프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필승조 찾기는 또 다른 퍼즐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첫 선발시즌을 보내면서 7승을 수확했던 한승혁이 이번 캠프 첫 연습경기 선발로 나서 '젊은 마운드'의 자리 전쟁의 막을 열었다.

출발은 좋지 못했다. 한승혁은 초구부터 타자 머리로 향하는 공을 던지면서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유격수 땅볼로 첫 아웃카운트를 잡은 한승혁은 좌익수 플라이로 투아웃을 만들었다. 세 번째 타구가 한승혁의 오른쪽 무릎 옆을 맞고 흘렀고, 한승혁은 직접 공을 잡아 1루로 송구하면서 1회를 끝냈다.

한승혁은 유격수 땅볼로 출발한 2회는 연속 삼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마운드 전쟁'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날 한승혁의 직구 최고 스

피드는 147km를 기록했다.

이어 나온 좌완 하준영과 우완 홍건희도 좋은 피칭으로 박수를 받았다.

3회초 파울플라이로 첫 아웃카운트를 잡은 하준영은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연속 삼진으로 3회를 정리했다. 좌전안타로 선두타자를 내보낸 4회에는 삼진 하나를 더한 뒤 직선타로 아웃카운트 두 개를 동시에 처리했다.

홍건희는 15개의 공으로 2이닝을 끝냈다. 5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홍건희는 6회에도 세 타자만 상대하면서 패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7회에 마운드에 오른 문경찬도 삼자범퇴 행진을 펼쳤다.

마운드의 호투 릴레이 속 타석에서는 이창진이 '백업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2회초 선두타자 나지완의 안타에 이어 7번 타자 겸 3루수로 출전한 이창진이 좌측 2루타를 날리며 무사 2·3루를 만들었다.

타석에 선 김민식이 중견수 방향으로 공을 띄우면서 희생플라이를 기록했다.

1-0으로 앞선 7회 두 번째 점수에도 이창진이 관여했다. 1사에서 이창진이 내야안타로 멀티히트에 성공한 뒤 이은총의 볼넷으로 2루까지 향했다. 그리고 최정민의 우측 선상으로 빠지는 안타 때 홈에 들어오면서 득점을 기록했다.

8회초 류승현과 유민상의 안타로 추가 득점에

성공한 KIA는 3-0으로 앞선 8회말 이민우를 마운드에 투입했다.

하지만 이민우가 연속안타로 흔들렸다. 이민우는 무사 2·3루에서 투 아웃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1번 타자 시미오에게 볼넷을 내준 뒤, 와타나베에게 좌중간 넘어가는 역전 만루포를 허용했다.

9회 등판한 박지훈도 3안타로 1점을 내주면서 경기는 3-5 역전패로 마무리됐다.

한편 첫 선발로 나선 한승혁은 "첫 등판이었는데

데 밸런스가 나쁘지 않았고 무난한 등판이었다. 초구를 던지면서 (공이 빠져서) 아차 싶기도 했다"면서도 "가운데 보고 던지려고 했다. 스피드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남은 기간 체중 관리 하면서 몸 회전과 스피드에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KIA는 12일에는 일본 주니치 드래곤스와 연습경기를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소외 아동·청소년 야구동아리 운영기관 모집

KIA·기아차 28일까지

KIA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28일까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야구동아리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화성, 오산, 평택, 소재 기관 중 취약계층 아동 야구동아리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복지 기관과 시설이면 신청할 수 있다.

2곳의 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에는 9개월간(4-12월) 각 27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성과에 따라 최장 3년간 지원)

선정된 기관은 20명 이상 선수로 팀을 구성해 9개월 동안 20회 이상 훈련을 해야 한다. 예산 상황에 따라 동계훈련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야구 동아리 지원 사업은

야구를 통한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 '광주 이스트 타이거즈' (동구 장애인복지관)와 '서울 드림 리틀 타이거즈'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홈페이지(www.grlight.kr)와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블로그(tigerslovetogethe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이메일(tigerslovetogether@naver.com)과 전화(02-6365-494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국내 최초 모기업-프로그래밍 연계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경기 기록에 따라 기부금을 매월 적립해 시즌 종료 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벤투호 세대 교체 돌입

기성용·구자철 국대 은퇴 선언 코치진, 이강인·백승호 등 점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세대교체를 위한 유망주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설 연휴 직전인 2월 초 휴가를 겸해 고향인 포르투갈로 출국한 벤투 감독은 현지에서 머물며 유럽 무대에서 뛰는 대표팀 선수는 물론 한국 축구의 미래인 이강인(18·발렌시아)과 백승호(22·지로나), 정우영(20·바이에른 뮌헨)도 점검할 예정이다.

대표팀의 주축이었던 기성용(30·뉴캐슬)과 구자철(30·아우크스부르크)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면서 세대교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벤투호는 3월 26일 예정된 베트남과 친선경기가 베트남의 사정으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3월 22일 또는 23일 국내에서 한 차례 평가전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이때 A매치 데뷔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이강인과 백승호, 정우영을 낙점한 셈이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 선수로는 역대 다섯 번째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1부리그)에 데뷔했다.

특히 이강인은 지난달 30일 헤타페와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레이) 8강전에서 환상적인 크로스로 팀 승리에 앞장섰고, 마침내 1군에 공식 등록했다.

벤투 감독은 11일 이강인 소속팀인 발렌시아와 레알 소시에다드간 프리메라리가 23라운드 경기가 열린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를 방문했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이강인이 결정하는 바람에 경기 장면을 볼 수 없었다.

또 프리메라리가 신고식을 마친 백승호가 출전한 우에스카와 경기에도 벤투호의 코치를 파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승호는 후반 교체와 함께 투입돼 45분을 뛰었다.

유연한 드리블 돌파와 정교한 슈팅이 강점인 백승호는 1군 무대에서 꾸준하게 출전 시간을 늘리며 벤투 감독의 낙점을 기대하고 있다.

벤투 감독은 아울러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정우영도 체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벤틀피카와 조별리그 경기에서 1군 데뷔전을 치렀던 정우영은 독일 레기오날 리가(4부리그) 소속의 뮌헨 2군에서 9골을 넣을 정도로 득점력을 과시했다.

벤투 감독과 코치들은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점검하고 3월 초 귀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60m 환상 질주 골... 행복을 주는 '쏘니'



"날아갈 것 같아"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의 레스터시티와 2018-2019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홈 경기에서 팀의 3번째 골을 성공시킨 손흥민(27·토트넘)이 두팔을 옆으로 벌리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달 30일 왓퍼드와의 24라운드, 2일 뉴캐슬과의 25라운드에 이어 리그 3경기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손흥민, 시즌 11호골 3경기 연속 득점... 토트넘 3-1 승 리그 3위 유지

손흥민(27·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손흥민은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의 2018-2019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 썬기 골을 폭발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15호 골, 리그만 따지면 11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지난달 31일 왓퍼드와의 24라운드, 3

일 뉴캐슬과의 25라운드에 이어 리그 3경기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12월 리그 16라운드 원정 맞대결 당시 1골 1도움 등을 포함해 레스터시티와의 9차 레 맞대결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하며 '천적'임을 재확인했다.

손흥민의 썬기 골에 힘입어 토트넘은 레스터시티를 3-1로 제압, 리그 4연승을 이어가며 승점 60을 채우고 3위를 지켰다.

1위 리버풀(승점 65)과는 5점, 2위 맨체스터 시

티(승점 62)와는 2점 차다.

페르난도 요렌테와 투톱으로 나선 손흥민은 전반 15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에게 걸려 넘어졌지만, 페널티킥 선언은커녕 시뮬레이션 액션이 지적돼 경고를 받았다.

3분 뒤엔 요렌테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의 대니 로즈에게 절묘하게 볼을 연결했으나 로즈의 오른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게 막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토트넘은 전반 33분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키런 트립피어-에릭센으로 이어진 패스를 산체스가 정확한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해 한 골 앞

선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31분 바디가 한 골을 만회한 이후 레스터시티의 파상공세가 이어졌지만, 토트넘은 교체 카드 활용으로 수비를 탄탄히 하며 리드를 이어갔다.

그리고 후반 추가시간 손흥민이 완전히 썬기를 박았다.

무사 시소코가 길게 올려준 공을 차단하려던 레스터시티의 윌프레드 은디다가 넘어지며 받아내지 못했고, 지체 없이 볼을 따낸 손흥민은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홀로 질주한 뒤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꽂아 승리를 자축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뉴스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보세요